

# 원주시 '굴뚝 없는 황금산업' MICE 산업 중심지 도약 선언

강원 원주시가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MICE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꾼다. 원주시는 2021년을 'MICE 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지역 핵심 주체들과 지난해 12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ICE는 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Event)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기업 회의와 학회, 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지역의 숙박, 음식, 출판, 홍보 등 연관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

시는 최근 중소도시들이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MICE 행사 유치에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업무협약에는 HDC오크밸리리조트와 호텔인터볼고 원주, 베니키아 호텔문막, 호텔 비즈인, 오키드호텔, 시티호텔 등 6개 사가 참여했다. 업무협약 이후 원주 MICE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상품 개발과 행사 유치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원주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2023년 준공 예정인 국립과학관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강점이다. 또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등 의료·과학 분야 행사 및 회의 개최를 중점 유치 전략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면 전국 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댄싱공연장과 원주종합체육관, 백운아트홀 등 대규모 공연장 및 야외 공연장, 치악예술관과 한지테마파크 전시시설, 리조트

와 호텔에 있는 컨벤션 시설 및 숙박 시설이 충분한 데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300~400석 규모의 대회장도 있어 MICE 산업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관광사업체와 함께 상생 협력을 통한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치악산국립공원에 복합 체험학습관 개관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치악산국립공원에 복합 체험학습관을 지난해 11월 23일 개관했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복합 체험학습관은 연간 75만 명이 방문하는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지구 입구에 들어섰으며,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다. 계룡산 체험학습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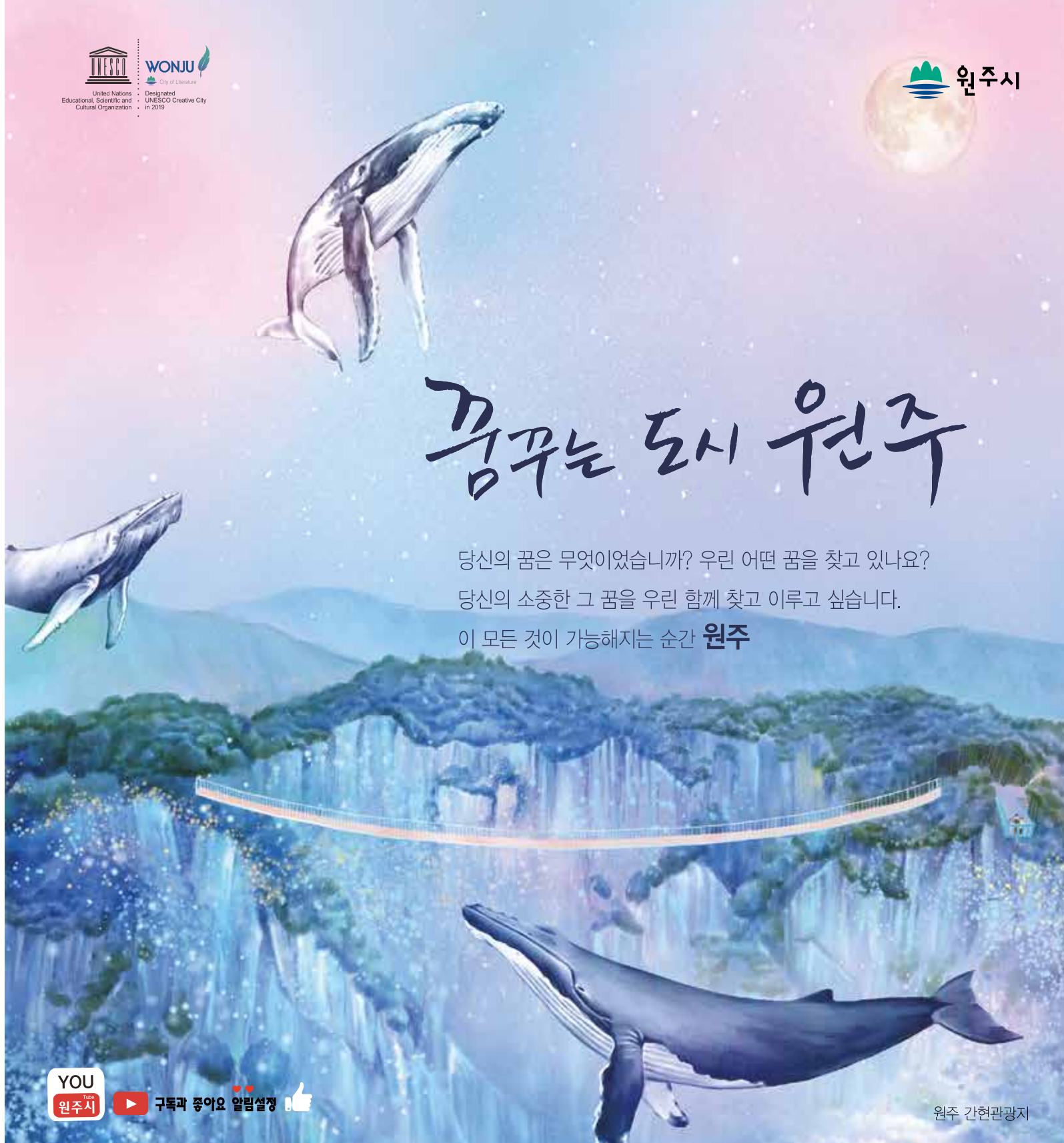
학습관은 생태 배움터와 체험터, 어린이 체험실, 야외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치악산국립공원의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 및 샌드크래프트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갖췄으며, 생태 교육과 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치악산 복합 체험학습관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동·식물 보호와 자연 자원, 문화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학습시설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❶



1 원주시청 전경  
2 원주기업도시  
친환경둘레길

Janua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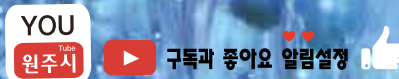


# 꿈꾸는 도시 원주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떤 꿈을 찾고 있나요?

당신의 소중한 그 꿈을 우리 함께 찾고 이루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원주**



원주 간현관광지



원주 소금산출렁다리



원주 레일바이크



원주 소금산출렁다리에서 일출